농 · 생명 · ICT산업 융합

전주시,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gro-ICT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선포식' 개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북지역 농생명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농생명 ICT융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gro-ICT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주시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산업과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북지역 농생명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농생명 ICT융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gro-ICT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Agro-ICT 융합 클러스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과 IC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6차 산업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혁신하고, 6차 산업 생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포식에서 참석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기 집적화된 농생명 관련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전북연구개발특구를 통한 기업 R&D 지원사업 등 농생명 ICT융합 기반 위에 관련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전주시 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견인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Agro-ICT융합클러스터 선포식에서는 손재권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는 네델란드와 덴마크 등 해외의 Agro-ICT 네트워크 선진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R&D혁신 중심의 전북 농생명벨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또 △스마트팜 △생산에서 유통판매 등의 종합 농산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Agro-ICT 융합클러스터 기반구축 모델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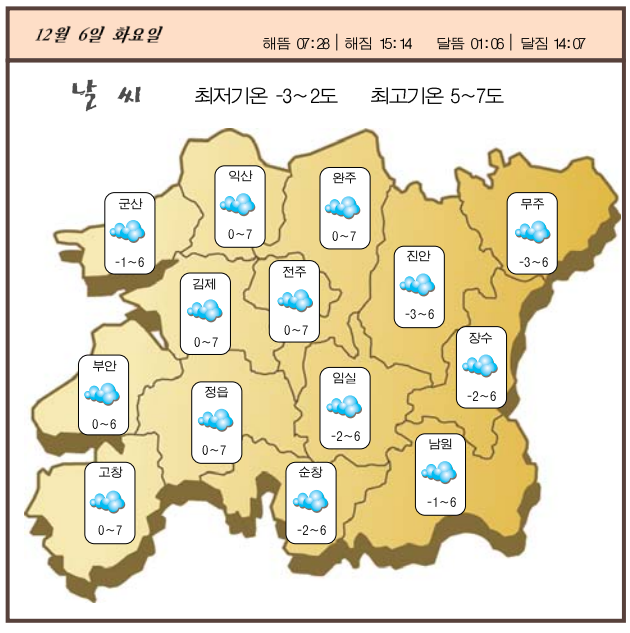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시와 진흥원은 농생명SW 융합클러스터사업 참여기관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 규모의 R&D사업을 지역 내 ICT 기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 완료시까지 약 70여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50여개의 R&D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Agro-ICT융합 클러스터' 추진이 본격 착수되면, 지난 10월 탄소와 3D프린팅, 사물인터넷, ICT융복합, 드론 등 5개 신성장산업을 미래의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ICT융복합 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농생명 산업 분야에 ICT기술의 파급효과는 미래산업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오늘 'Agro 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선포식'을 계기로 그간 추진한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 더욱 가시화하고 전주시의 ICT기업이 농생명 융복합 산업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Agro-ICT 융합클러스터 추진을 통해 IC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농생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 지역 농생명산업분야와 ICT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대, '눈높이 학사 행정' 학사 모니터 운영

전주대학교가 학교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른바 '눈높이 학사 행정'을 구현하기위해 학사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암행어사'로 불리는 학사모니터 요원들은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학교 생활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총장을 비롯해 학교 교직원들에게 학교 개선 사안 등을 발표하며, 학교측은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실제 학생 암행어사들의 활동으로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가 적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을 닫았던 기숙사 식당이 올해 6월 다시 문을 열었고, 학생회관 지하에 누수가 발생해 동아리 룸(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졌다.

이호인 총장은 "학생 모니터제도는 학교의 운영틀을 학생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라며 "학생 암행어사들의 땀방울이 일류 대학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지역 학교폭력 1201명 피해 경험 있어

학교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북도교육청은 '2016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이뤄진 것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조사에 약 12만4000명이 참여했는 데, 참여 학생 중 1201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년 조사 대비 236명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 데, 638명이 피해를 당했다. 또 중학생은 349명, 고등학생은 193명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보면 언어폭력이 34.4%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도 15.9%에 달했다.

이밖에도 신체 폭행과 스토킹·사이버폭력·금품 갈취·강제 심부름·성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은 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교실 안에서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벌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학교폭력과 관련해 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94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전주시 미래 농업 이끌어갈 인력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접수

창업기반 조성 자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계획

전주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 육성을 위해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에게 창업 농업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가 인구 감소와 심각한 농촌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 창업농과 가업 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미래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대출, 교육 및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기반 조성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대출은 연리 2%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사업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자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전주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전라북도에 추천하면, 전북도의 최종 심사를 통해 3월 중순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유능한 젊은 예비 농업인과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이런 좋은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